

# 불갑산상사화축제

## 영광군, 본격 준비

### 상사화축제 행정지원계획 시달회의 개최

영광군은 제19회 영광불갑산상사화축제 추진과 관련해 지난 16일 군청 2층 소회의실에서 '제19회 영광불갑산상사화축제 행정지원계획 시달회의'를 갖고 본격적인 축제 준비에 나섰다.

이날 회의는 추진위원회로부터 제19회 영광불갑산상사화축제 주요행사 및 세부계획을 듣고 축제 준비에 따른 각 실과소, 읍면별 추진 계획 및 협조사항을 전달하는 순서로 진행되었다.

제19회 영광불갑산상사화축제는 오는 9월 18일부터 24일까지 7일간 '상사화, 천년사랑을 품다.'라는 주제로 가족들이 함께할 수 있는 다양한 볼거리와 참여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다.

올해는 축제장 내 워터 조성과 편의시설 확대를 통한 관광객 체류시간을 늘리고 상사화 주제공연과 신규 야간 프로그램 편성 등 다양한 공연·전시·야간 행사 프로그램으로 다양한 볼거리와 체험 공간을 제공한다.

특히 축제 종강독을 선임하여 축제 기획 전반을 업그레이드하는 한편 축제주제와 맞는 '경운스님'과 '인도공주' 개막식 주제공연과 최신 트렌드를 반영한 야간 프로그램 강화 및 레드윈 EDM 공연을 통해 관객들이 다함께 뛰어 놀 수 있는 자리가 될 예정이다.

축제 첫날 9월 18일 오전 10시부터 삼장사 주차장에서 '사랑의 연줄 드리우기' 행사를 시작으로 군민과 관광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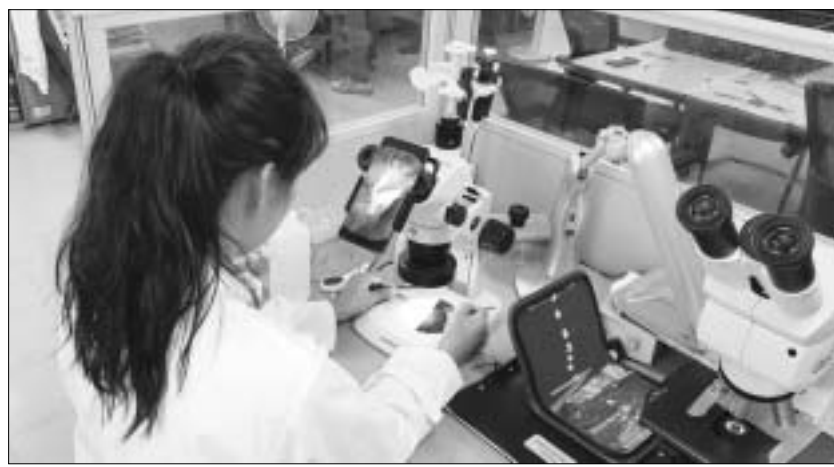
이 함께 걷는 '상사화 꽃길걷기' 및 주제공연으로 본격적으로 축제가 시작된다.

전국다문화모국춤 페스티벌, 상사화 군민가요제, 상사화 어린이 가요제, 커플상사화 가요제, 오케스트라 공연, 국악공연 등 무대 행사, SNS 사진 인증샷 VR/AR 체험 등을 비롯해 지역 동호회가 중심이 된 상사화, 야생화, 산약초, 수석, 분재, 사진·미술·서예·시화전 등 전시행사가 풍성하게 열린다.

올해 처음 선보이는 상사화 쌀을 포함하여 지역 특산품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특산물 판매장과 굴비시식회 및 마을장터를 운영하여 지역주민들이 축제에 직접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자리도 마련되었다.

영광=서희연 기자

## 함평군, 지역 농가 '딸기 꽃눈분화 현미경 검사' 운영



### 내달 25일까지

함평군 농업기술센터는 오는 26일부터 내달 25일까지 한 달간 지역 딸기 재배 농가를 대상으로 '딸기 꽃눈분화 현미경 검사 서비스'를 운영한다고 20일 밝혔다.

꽃눈분화는 딸기가 생육에 필요한 영양·육묘기간 등 조건들이 모두 다 완성돼 꽃눈을 형성하는 것으로, 최적의 딸기 정식 시기를 예측할 수 있는 바로미터다.

보통 60대 이상 현미경을 통해서만 확인이 가능해, 일반적인 재배농가에

서는 최적의 딸기 정식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다.

꽃눈 분화가 되지 않은 미분화묘를 일찍 심을 경우, 오히려 딸기 수확이 평균 2개월가량 늦춰진다.

센터는 이달 초 딸기 꽃눈분화 현미경 검사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결정하고 오는 26일부터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할 예정이다. 검사를 원하는 자는 해당 육묘장 중앙부에서 일석이 진한 묘 3~5개를 뽑아 센터 기술보급과로 방문하면 된다.

센터 관계자는 "이번 서비스를 통해 딸기의 조기 정식만 이뤄진다면 가장 비싼 시기인 12월부터 1월까지 안정적으로 생산·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앞으로도 올해 국·도비 사업으로 조성한 딸기 육묘장 5개소를 활용하는 등 고품질 딸기 생산 및 육성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함평=김광춘 기자

## 담양군, 미래 농업의 주역이 될 청년농업인 찾는다

담양군이 농촌지역 고령화에 대응해 열정과 신기술로 뚝뚝 뚫은 청년농업인을 육성한다.

담양군은 청년농업인의 성공모델을 구축하기 위해 2020년 청년농업인 경쟁력 제고 사업 공모 신청자를 30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청년농업인 경쟁력 제고사업은 농촌진흥청에서 개발된 신기술과 청년농업인의 창의적 아이디어가 융복합되어 농산물의 고부가가치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사업으로, 매년 8월 전라남도에서 시군농업기술센터의 추천을 받아 서류심사와 발표심사를 통해 사업대상자를 선정하고 다음해 사업을 추진하는 자율형 공모사업이다.

올해는 도내 5개소를 선정하며, 사업에 선정된 대상자는 자부담 500만원에 1인당 4천5백만원의 지원을 받는다.

신청자격은 만 18세~40세 미만

청년농업인(1981년 1월 1일생부터 신청 가능)으로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병역필 또는 면제자이며, 사업계획서와 현지평가를 통해 1명을 선발해 전남도에 추천할 예정이다.

신청기간은 이달 30일까지이며, 담양군청 홈페이지(고시공고)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담양군농업기술센터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담양=박종영 기자

### 장성군, 경력단절여성

#### 취·창업 돕는다

#### 온라인마케팅관리자 양성

장성여성새로일하기센터(이하 '여성새일센터')가 경력 단절 여성들의 경제 활동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2019년 여성 취·창업교실 중 하나인 '온라인마케팅관리자 양성교육'을 추진한다.

여성새일센터는 현재 '온라인마케팅관리자 양성교육'에 참여할 교육생 20명을 모집 중이다.

'온라인마케팅관리자 양성교육'은 SNS마케팅, 디지털마케팅 등 온라인 마케팅을 통해 제품이나 장소를 홍보하는 전문가를 양성하는 과정이다.

이번 교육은 군청 전산실에서 9월 2일부터 10월 11일까지 주 5회, 총 100시간에 걸쳐 진행될 예정이다.

교육 과정은 경력 단절 여성들의 취업, 창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온라인 쇼핑몰 개설 및 관리, 홈페이지 운영 및 홍보 마케팅 등으로 이뤄지며, 교육을 희망하는 여성은 여성새일센터에 직접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 화순군, '흑염소 산업 활성화' 업무협약

### 래오이경제·새물한방제약·화순군흑염소협회 참여

19일 화순군은 ㈜래오이경제, ㈜새물한방제약, 화순군흑염소협회와 화순군청 소회의실에서 업무협약을 맺고 흑염소 소비 촉진과 산업 활성화에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군은 최근 흑염소 가격 하락, 소비량 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흑염소 사육 농가의 소득 증대와 흑염소 산업화 활성화를 위해 업무협약을 추진하게 됐다.

이날 맺은 업무협약은 주요 내용은 건강 기능성 식품 소재로서 흑염소 소비 촉진, 산업화를 위한 공급 협력, 기술·정보 교류 활성화 등이다.

협약식에는 최형열 화순군 부군수,

이경제 ㈜래오이경제 대표, 박경혜 ㈜새물한방제약 대표, 양승구 화순군흑염소협회장, 강순팔 화순군의회 의장, 김석봉 화순군의회 총무위원장, 하성동 화순군의회 산업건설위원장, 정삼차 화순축산농협 조합장, 조경숙 녹색흑염소 대표, 김동희 화순군농업기술센터 소장 등이 참석했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이번 업무협약이 산업체, 생산단체와 지자체 간 소통과 협력을 활성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며 "상호협력을 통해 위축되고 있는 흑염소 산업에 새로운 활력이 넘쳐길 바란다"고 말했다.

화순=박순철 기자

## 장흥군버섯산업연구원, 지역 산업체

### 상황버섯 배양미 특허기술 이전

장흥군 버섯산업연구원은 지난 19일 장흥군수실에서 장흥바이오식품산업 입주 기업인 신일바이오(대표 이재식)와 특허기술 이전계약을 체결했다.

이번에 이전한 기술은 기능성 물질인 베타-글루칸이 다량 함유되어 있는 상황버섯을 이용해 향산화, 항암물질 등이 증진된 '상황버섯 균사체 배양 배지의 조성물 및 건강기능식품'의 제조에 관한 특허기술이다.

이 기술은 장흥군버섯산업연구원서 지난 2년간 산업통상자원부의 기술료 사업을 통해 연구·개발한 성과물이다.

신일바이오는 이전받은 기술을 활용하여 화장품, 건강기능식품, 의약품 등 고부가가치 바이오산업에 필요한 제품 소재를 제조하여 판매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장흥군버섯산업연구원은 지적재산권에 대한 기술료와 향후 5년간 해당 제품의 경상기술료를 징수하게 된다.

나재식 신일바이오 대표는 "지역 산업체에서 제품 소재의 원천기술을 개발하기까지는 많은 시간과 자본 투자가 필요하여 어려움이 있는데 장흥군버섯산업연구원의 특허 기술들이 제품 개발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정준수 장흥군수는 "이번 기술이전으로 신일바이오가 국내 제품시장에 큰 경쟁력을 갖고 매출 증대로 이어질 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산업체에서 필요로 하는 현장 중심적인 연구 개발을 통해 우리군 기업들의 발전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나주시, 국제 관광박람회

### 참가축제·관광지 등 홍보

나주시는 지난 15일부터 18일까지 나흘 간 일산 컨텍스에서 진행된 '제4회 대한민국 국제 관광박람회'에 참가, 나주를 대표하는 먹거리와 관광지를 홍보했다고 20일 밝혔다.

전국 지자체 및 국내·외 관광기관·단체 378개가 참가한 이번 박람회에서 나주시는 홍보부스 운영을 통해, 10월 11일부터 13일까지 국립나주박물관 일원에서 열리는 '제5회 2019 마한문화제'를 비롯한 황포돛배체험, 빛가람전망대 등 주요 관광명소를 집중 홍보했다.

또한 나주배, 나주곰탕, 영산포 홍어, 구진포 장어 등 대표 먹거리와 농·특산품을 관광리플릿 등을 통해 소개했다.

시는 박람회 기간 나주배추 시사회를 통해 부스를 찾은 국내·외 방문객들의 관심과 입맛을 사로잡았다.

